

0. 철학적 논쟁의 의미와 가치 :

비판적 논쟁을 통해 적과 친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철학적 통찰력을 길러나가기

지젝의 철학적 사유에서 적과 친구를 가르는 불변의 고정선은 없다. 그에게는 삶과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한 사유의 과제나 쟁점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관점과 해결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사유의 나눔과 투쟁이 있을 뿐이다. 불의한 현실의 기득권과 특권을 옹호하는 철학은 가장 확실한 지젝의 정치적 적이지만 본격적인 철학적 논쟁은 아니다. 지젝의 철학적 논쟁 중 가장 첫손가락에 꼽히는 적은 사회의 적대성과 모순을 부정하고 사회의 완전성이나 조화로운 전체를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이다. 사회의 유기적 전체성을 주장하는 이론과 철학은 기존의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사회와 타자에게 필연적으로 사유의 중지와 동일성의 폭력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철학적 논쟁은 현실적 이익과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셈법이 아니다. 철학적 논쟁의 과정은 세계,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기존의 큰 패러다임을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나 이론들을 정교하게 다듬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비판적 논쟁은 기존의 주류나 비주류 사유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냉소적 거부, 기존의 대안적 사유들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자 방법이다.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거치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고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즉 상호 보완적 대화나 양립 불가능한 대립과 투쟁 등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더 새롭고 나은 패러다임이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관점과 방법론,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합리적인 결론과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자의 사상과 이론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쟁점을 둘러싼 분과 학문들의 관점과 방법론이 교차하면서 창조적인 융합과 통섭이 가능해지게 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작하자마자 시대적 지역적 사고 관습에 의해 이내 사유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만다. 그런데 방법론적 회의주의의 비판적 태도와 열린 정신의 자세와 같은 철학적 사유는 인간의 사유의 조건과 한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해준다.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옥죄는 사유와 감각의 쇠사슬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로부터 벗어나 더 넓고 깊은 관점으로 더욱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자기 사유의 특정한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조건과 제한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특정한 사유의 지평에 갇힌 현실과 자기를 좀더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런 자각과 깨달음에서 나온 에너지로 폭넓고 다층적인 섬세한 정신과 감각으로 좁은 시야와 협소한 마음을 벗어나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과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과 타인, 이해타산적인 세상과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소화하는 마음의 그릇이자 올곧은 주체성인 까닭이다. 이 마음과 정신의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앎과 느낌, 정신과 마음의 용량도 커지게 되어 좀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능이 증진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의 한계에 갇힌 현실과 자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자기와 현실의 새로운 세계로 재탄

생하게 되고, 더욱 인간답고 자기다운 충만한 자기가 되어 살아가며 타자와 소통하면서 더욱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1. 현대철학의 핵심 과제 :

대체로 탈구조주의 현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사유의 과제는 의식의 불가능성, 의식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또는 현실화하는가이다. 현대철학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통해 기존의 사유 방식과 다르게 사유함으로써 고정되고 폐쇄된 사유체계를 열려진 사유의 장과 지평으로 바꾸면서 질문의 해답에 해당하는 것의 본질과 핵심에 도달하고자 한다.

자크 라캉, 질 들뢰즈, 마르틴 하이데거, 미셸 푸코, 엠마뉘엘 레비나스, 슬라보예 지젝 등 현대철학에서는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되는 대상을 존재론적으로 실체화하지 않고 주체와 대상, 주관과 객관을 매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존재론적으로 혹은 인식론적으로 또는 가치론적으로 탐구한다. 즉, 특정한 방식과 형태의 주체와 대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경험가능성의 조건이 무엇인지, 주체와 대상을 구조화하고 실체화하는 원리나 그 매개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개체와 대상이 관계맺게 되어 개체화되고 대상화되도록 만드는 매개자는 선험적인 장으로서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초감각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즉 의식 불가능한 것으로 현상하는 것들이다. 그것이 바로 들뢰즈에게는 차이 그 자체나 생명의 내재성 혹은 욕망(잠재성)으로 다루어지고, 라캉과 지젝에게는 실재계나 충동 혹은 부분대상으로서의 대상a(데카르트와 칸트의 공백으로서의 주체, 헤겔의 부정성)로 나타난다. 또한, 그것이 푸코에게는 역사적 선험적 인식틀로서의 에피스테메(그것이 물화된 규율권력장치)로, 레비나스에게는 절대적 타자성으로서의 타자의 얼굴로, 하이데거에게는 존재와 존재론적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현대철학이 공유하는 ‘불가능성을 사유하기’ 혹은 ‘바깥의 사유’이다. 이 사유의 ‘불가능성’이나 사유의 ‘바깥’은 개인의 의식이나 현실 질서 안에서는 현상하지 않지만, 개인의식이나 현실질서를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인 변화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실재적인 힘이다.

이렇게 탈구조주의적 현대철학은 억압된 타자성과 우발적으로 마주침으로써 그 충격과 함께 사유를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촉발로 인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유가 가능하게 된다. 의식으로 재현 불가능하고 동일화할 수 없는 타자성을 사유하려는 철학적 사유는, 의식하는 주체나 개인, 의식되는 대상을 실체화하여 주체의 일관성이나 대상의 안정성을 전제하고 이를 사회나 자연이라는 유기체적 구조를 이루는 하위의 기능적 요소로 간주하는 근대적 사유 방식의 폐해를 비판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계론적이고 기능주의적 사유 방식은 생명의 자발성과 고유성을 억압하고 특권화된 권력 장치의 지배 대상과 하위 구성 요소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고정된 실체로 간주된 개인 주체와 개별자로서의 대상은 그 자체의 고유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고 기계적 인과질서의 한 구성요소로 전락하거나 주체나 대상 바깥의 거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환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자기 바깥의 초월적 목적에 연결시키게 되고, 개별자들은 통일성과 전체성을 지닌 유기체적 구조의 한 요소나 기능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으로 모두 포섭되게 된다. 이것의 정치적 표현이 바로 파시즘과 전체주의이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상징질서의 현실적 가능성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질서의 불가능성을 상상하고 사유해서 현실의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현실의 불가능성을 새로운 삶과 사회라는 상징질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철학적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늘 억압적이고 불의한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이렇게 사유되지 않는 것을 사유하는 철학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질서에 침묵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는 사유와 실천을 향한 투쟁의 용기와 연대를 통해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실천을 낳는 동력을 창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 2. 들뢰즈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구도

들뢰즈는 차이를 차이 그 자체로 사고하지 않고 특정한 매개나 유비를 통해 동일성의 토대로 환원하는 사유방식을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사유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획일화시키는 단계론적 기계론적 혹은 목적론적 사고를 위한 장치로 매개와 유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 자체로서의 일자를 거부하고(셈해진 사유로서의 일자는 가능), 생성하는 무수한 존재자들의 이질성의 종합과 열린 체계를 통해 차이의 존재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적 매개와 종합,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와 종의 유비적 논리를 통한 동일성과 재현의 철학을 거부한다. 들뢰즈는 변증법적 논리의 동력을 부정으로 보고, 헤겔의 부정이나 모순, 대립은 차이 자체를 나타내지 않고 결국 정과 반을 지양하는 동일성의 논리로 귀결된다고 본다. 그래서 부정을 통한 반성이나 발전의 논리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와 니체의 철학적 구도의 연장선에서 특정한 권력으로 현실화된 존재의 질서를 존재자들의 고유한 내적 역능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질서로 변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차이들의 무한한 발생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자들의 내적 차이와 역능을 무한히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철학을 주창한다.

### \*차이의 존재론 :

‘개념적 차이’(difference conceptuelle) : 동일성에 포섭되고 수렴되는 차이, 개별자들을 유적 동일성(유기체)에 종속시키기 위한 매개적 개념이다.

‘개념없는 차이’(difference sans concept) : 동일성의 범주에 종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자체, 개별자의 이질적이고 다수성인 내적 차이.

### 1) 존재의 일의성 :

존재의 일의성이란 모든 개별적인 존재자들과 양태들에 대해 ‘이질적이고 내적인 다수성으로 있음’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존재라는 말이 쓰인다는 뜻이다. 초월적 존재/기억(이데아, 신, 구조 등)에 의해 동일화되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자들이 차이를 지니며 계속 생성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처럼 다양한 존재자나 양태는 다양한 의미를 통해 유비적으로 통일되는 존재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나 니체가 말한 바처럼 모든 존재자는 ‘차이나는 생성이 반복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동일한 의미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현실적 존재자의 있음/존재란 차이의 반복, 생성의 반복으로 ‘차이나는 생성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 즉 존재자의 비일관적이고 비등질적인 생성의 이질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흐름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존재의 일의성은 내재성의 존재론을 함축한다.

∴ 존재의 일의성 = 내적인 다수성(현실적인 것의 힘) + 이질성 + 우발성 + 평등성

☞ 알랭 바디우의 비판 : 들뢰즈는 존재를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즉 존재 대 생성의 이원론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된 플라톤주의의 양상이다. 그래서 바디우는 잠재적인 것을 뺀 현실적인 것의 일의성을 주장한다.

## (2) 들뢰즈의 기본적인 존재론 구도 : 인간 경험의 선험적 조건

① 물체적 질서 : 물체들(somata, 물체적인 것) 간의 인과적 작용과 반작용의 질서

② 비물체적 질서 : 물체의 표면 효과(asomata, 비물체적인 것)로서 물체에서 솟아오르는 사건들(시뮬라크르)

\*비물체적 인과 : 준원인/의사-인과성(pseudo-casuality). 이미 형성된 사건-의미들의 계열들 사이의 장(場)에 무의미와 우발점으로 솟아오른 사건이 그 장의 한 자리에 위치하여 계열화되어 배치되면 그 사건은 의미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뮬라크르로서의 의미-사건은 나름의 독립성과 효과가 큰 존재론적 영역.

③ 의미체계로서의 문화세계/사회질서/현실세계 : ①과 ② 사이에서 물체와 비물체 사이의 비관계의 관계로서 문화적 삶과 세계(존재의 질서, 현실질서)가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변환된다.

## 3. 들뢰즈1 대 들뢰즈2 -들뢰즈 안의 또 다른 들뢰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①들뢰즈1 = 가타리화되지 않은 본연의 들뢰즈 : 생성과 존재의 양립불가능한 대립이라는 곤궁에 직면한 들뢰즈. 들뢰즈 초기의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 /들뢰즈 후기의 『시네마 I · II』의 텍스트.

②들뢰즈2 = 가타리화한 들뢰즈 : 단순화된 평면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들뢰즈. 『앙티-외디푸스』, 『천 개의 고원』 등 가타리와 공동 저작물. 영미권에 알려지고 도식화된 들뢰즈.

들뢰즈 존재론의 기본 좌표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인 것과 현행적인 것의 “셀링적” 대립이다. 현행적인 것(현재의 실제행위, 경험된 현실, 그리고 형성된 개체로서의 인격체들)의 공간과, 그 공간에 동반되는 그것의 잠재적 그림자(원-현실의, 다양한 단독성들의 장, 나중에 우리의 현실 경험으로 종합되는 비인격적 요소들의 장). 이것은 “초월적 경험론”의 들뢰즈이며, 칸트의 초월적인 것에 독특한 뒤틀림을 부여하는 들뢰즈이다. 고유의 초월적 공간은 다양한 단독적 페텐셜들의 공간이며, 어떤 선제하는 안정적이고 자기동일적인 것의 제스처-정서지각들이 아직은 아닌 “순수하고” 비인격적인 단독적 제스처들, 정서들, 지각들의 공간이다. [중략]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한 건축물에 최초의 틈이 나타난다. 자명함과 거리가 먼 어떤 조치를 통해 들뢰즈는 이 개념적 공간을 생산과 재현이라는 전통적 대립과 연결시킨다. 잠재적 장은 재현의 공간과 대립적인 발생적, 생산적 힘들의 장으로 (재)해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물적인 총체화하는 조직화에 의해 제약되는 생산성의 다양한 분자적 현장들에 관한 것을 비롯한 일체의 표준적 논제들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들뢰즈는 생성과 존재의 대립이라는 표제하에 이 두 논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 둘이 근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하지만 말이다(우리는 들뢰즈를 두 번째 논리로 몰고 간 “나쁜” 영향을 가타리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진다). 생산의 고유한 현장은 잠재적 공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 공간에서 구성된 현실로의 바로 그 이행이며, 다수적인 것과 그것의 진동들이 하나의 현실로 붕괴되는 곳이다. 생산은

근본적으로 잠재성들의 열린 공간에 대한 제한이며, 잠재적 다수성에 대한 규정이자 부정이다.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 · 박제철 · 이성민 옮김, 48~49쪽)

☞ 손쉽고도 잘못된 해결책 : 표상체계인 상징질서를 부정하고 잠재력의 공간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 방향은 들뢰즈의 초기 곤궁에 다시 직면하여 잠재적인 공간에서 현실로 이행하는 것이다.

### (1) 들뢰즈1 -가타리화되지 않은 들뢰즈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는 푸코의 찬사대로 “차이를 해방시키는 철학”으로 정치성이 극대화된 텍스트이다. 『의미의 논리』: 비물체적 세계의 의미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존재와 생성이 상호 작용하는 세계의 모습을 해명.

문화세계 : 계열화된 체계, 의미의 세계

↑↑↖↗↘↙↑↑↑사건의 발생과정 :

물질 · 자연

\*발생하는 사건들 : 문화라는 상징질서에서 사건이 다뤄질 때 의미화되는 측면이 의미의 세계이고, 그것은 물질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상징적 체계는 사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거나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준-원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환원주의로의 퇴행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다. 즉 그것은 초월적 인과성의 순수한 심급을 지칭한다. [중략] “준-원인”은 이러한 과잉의 원인, 하나의 사건(새로운 것의 출현)이 그 역사적 상황들로 환원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의 원인이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준-원인은 이차적 층위의 원인이다. 즉 그것은 (물체적) 원인을 초과하는 효과의 바로 그 과잉의 메타원인이다. 변용됨에 관해 들뢰즈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비물체적 사건이 순수한 정서affect(무감수적-중립적-불모적 결과)인 한에서, 그리고 새로운 그 무엇(새로운 사건, 새로운 것(으로서)의 사건)이 그 물체적 원인들의 사슬이 완결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출현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물체적 원인들의 그 물망이 아니라 순수한 초월적 변용 능력을 가정해야 한다. 이는 또한 라캉이 『의미의 논리』의 진가를 높이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들뢰즈의 준-원인은 라캉의 대상a, 즉 욕망의 대상-원인으로 기능하는 이 순수하고 비물질적이고 유령적인 존재자의 정확한 등가물이 아닌가?

[중략] 들뢰즈의 존재론의 기본 전제는, 정확히, 물체적 인과성은 완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체의 원인과 결과의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기술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의 출현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략] 오히려 반대로 준-원인은 물체적 인과성의 틈을 메운다. 이와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사건이 의미-사건인 한에서, 준-원인은 의미에 내속적인 바로서의 무-의미non-sense이다. 어떤 발화가 그것의 의미로 환원될 수 있었다면 그 발화는 현실로 귀착될 것이다. 즉 의미와 지칭된 현실의 관계는 단순히 세계 안의 대상들의 관계였을 것이다. 무의미는 지칭된 현실(“지시체”)과 관련하여, 의미 층위의 자율성, 순수 생성의 표면 흐름이라는 층위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기의 없는 “순수” 기표로서의 저 불운한 “남근적 기표”로 돌아가게 되지 않는가? 라캉적인 남근은 의미의 흐름을 지탱하는 무의미의 바로 그 지점 아닌가?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 · 박제철 · 이성민 옮김, 61~63쪽)

준-원인은 '의미에 내재한 무의미'의 측면으로서 의미체계의 자율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 의미의 흐름이라는 구조는 그 본질적 기원인 물체적인 것과 독립해 자신만의 자율적인 장으로 구성된다.

준-원인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역할 ⇒ 준-원인 = 남근의 차원 ①의미의 흐름을 유지시키는 무의미의 지점 ②차이로 이루어진 의미체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것의 총체화를 방해하는 상징계를 지탱하는 실재계의 넘침

『차이와 반복』 : 물체적 세계의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존재와 생성이 대립된 세계의 모습을 해명. 잠재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현행적인 것의 가능 근거이다. 현행화를 초과하는 잠재적인 것의 과잉/생성 → 이념(내적 절대적 차이) → 문제제기(반복과 차이의 새로움) → 해답 : 해답보다 문제제기가 더 중요하다.

존재 : 생성/사건의 효과가 '물화된' 질서

생성(사건) : 역학적이고 생산적인 운동

☞ 지배적이고 총체화하려는 모든 체계에 대해 욕망하는 기계가 가지는 혁명성을 강조한다. 존재 대 생성, 국가 대 노마드라는 대립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 2) 들뢰즈2 -가타리화된 들뢰즈

『앙티외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 : 가타리화된 들뢰즈의 모습. 결핍된 상징계를 경유하지 않고 생산적인 욕망의 역동적인 배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해명함.

-지젝의 들뢰즈 비판 : 상징계를 거부하는 도착. 상징계라는 역능 약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실재계에 도달하려는 것은 정신분석에 의하면 상상계에 갇힌 정신병적 상태를 뜻한다. 지젝은 상징질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경로라고 본다. 지젝은 기의없는 기표들에 의해 형성된 차이의 체계인 상징계 안의 결핍과 과잉으로 나타나는 실재계나 대상a 같은 부정성은 상징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젝은 이뿐만 아니라 상징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편적인 규범의 초월론적 조건을 탐구하고, 이러한 윤리나 도덕 법칙을 통해 상징질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뢰즈의 사유에서 여러 판본(유목적인 것 대 국가, 분자적인 것 대 물적인 것, 분열증 대 편집증 등)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기본적 이원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 이원성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 대 나쁜 것”으로서 과잉결정된다. 즉 들뢰즈의 목표는 생성이 존재의 질서에 스스로 노예상태가 되는 것으로부터 생성의 내재적 힘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문제삼는 첫 단계는 이 이원성을 존재와 사건의 이원성과 대면시킴으로써, 양자의 궁극적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건은 존재의 질서를 발생시키는 생성의 잠재적 장과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미의 논리』에서 사건은 유사-원인성의 역량만을 지닌 “불모적인” 것으로서 분명히 단언된다. 그래서 존재의 층위에 있는 것이 환원불가능한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특수자들이며, 총체화/단일화의 기본 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건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63~64쪽)

아마도 들뢰즈의 한계는 그의 생기론에 있을 것이다. 즉 그가 생명 개념을 존재 자체의 유일하게 참된 포괄적 전체, 존재 자체의 일자성으로부터의 생성에 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고양시킨 것에 있을 것이다. 생성의 순수 흐름이 점차 자기-분화되는 과정을 묘사할 때, 이 흐름이 별개의 존재자들로 점차 “물화”되는 과정을 묘사할 때, 들뢰즈는 사실상 일종의 플라톤적 유출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관념론적” 자세에 맞서 우리는 유일하게 적합한 존재론, 즉 순수 존재의 유일한 과학으로서의 수학에 관한 바디우의 테제를 고수해야 한다. 순수 다수성의 의미없는 실재, 공백의 무한하고도 광대한 냉점함. 들뢰즈에게 차이는 무한한 생명이라는 일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독성을 가리킨다. 반면 바디우를 통해서만 기저에 그 어떤 일자성도 놓여 있지 않은 다수성(들)을 얻는다. 들뢰즈에게 생명은 여전히 “왜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인 반면, 바디우의 대답은 불교와 헤겔에 보다 가까운 보다 분별력 있는 답이다. **오직 무만 “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은, 헤겔이 말했듯이, “무로부터 무를 통해 무로” 일어난다.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64~65쪽)

들뢰즈의 한계 : 생기론 = 생성의 순수 흐름이 점차 자기-분화되는 과정/물화되는 과정이다.

이는 플라톤적 유출과정의 표현으로 관념론적인 자세이다.

들뢰즈의 차이 = 무한한 생명이라는 일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독성.

#### -기관없는 신체와 신체없는 기관

들뢰즈의 두 잠재성과 그 대립 해소의 지점

생산적 생성의 장소로서의 잠재성	불모적인 의미-사건의 장소로서의 잠재성
기관없는 신체 : 아직 구조화되거나 기능적 기관들로 결정되지 않은 신체	신체없는 기관 : 신체에 부속되지 않은 자율적인 기관으로서의 모습, 부분대상.
분열증자 : 다수의 정념의 흐름 속에 내던져짐. 현실을 발생시키는 역량으로서의 사건. 분열증자의 생산적인 힘	신체적 상호작용의 불모적인 비물질적 순수 효과로서의 사건. 마조히스트의 형상.
하부구조-물질적 신체들의 혼합	상부구조-의미의 비물질적 효과
총체화하는 물질적인 권력체계에 저항하고 그것을 와해시키는 다수적인 분자적 집단들의 자기 조직화 → 자발적이고 비위계적인 살아 있는 다수성이라는 좌파적 논리의 원천	의미효과의 자율성과 효능성 :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투쟁의 결정적 장소이다. 정치적 영역.
생산적 생성의 존재론	의미-사건의 불모성 존재론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64~72쪽)

#### 4. 들뢰즈와 가타리의 외디푸스 삼각형 비판

그렇다면 왜 이 “순수” 기표를 “남근(phallus)”이라고 부르는가? (라캉뿐만 아니라) 들뢰즈에게 분명했듯이 거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매우 특정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보편적인 상징적 과정은 어떻게 스스로를 그 육체적 뿌리로부터 이탈시키는가? 그것은 어떻게 상대적 자율성

속에서 출현하는가? “거세”는 우리가 비육체적인 것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폭력적인 신체적 절단을 지칭한다. 그리고 유한성의 논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세”는 단순히 유한성의 경험의 국지적 사례들 중 하나가 아니다. 이 개념은 좀 더 근본적인 “원-초월적” 물음 즉 **우리 인간은 애초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유한성으로 표식된 것으로 경험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한다. [중략]

그것은 내가 상징적 질서에 포획되었다는, 상징적 위임을 떠맡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거세이다. 거세는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나와 내게 이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 위임 사이의 바로 그 간극이다. 이런 정확한 의미에서 거세는 권력의 대립물이기보다는 권력과 동의어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근을 나의 존재의 생명력과 나의 원기왕성함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왕이나 판사가 표장을 걸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걸치는 그러한 표장, 가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근은 내가 걸치고, 내 신체에 부착되지만 결코 내 신체의 “유기적 일부”가 되지 않는, 즉 비통합적인 과잉적인 보충으로 영원히 튀어나와 있는 “신체없는 기관”이다.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옮김, 168~173쪽)

→ 남근 = 내게 속하는 기관이 아님 + 가면처럼 여겨야 하는 것 : ‘신체없는 기관’으로 내 몸에 달라붙지만 유기체적 부분이 되지 않고, 즉 영원히 나와는 일관성을 이루지 않는 잉여로 돌출해 있다.

-상징적 거세는 문화세계의 물질적 기원을 알려준다. 엄마-나-아빠의 외디푸스 삼각형에 상징 질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이-주체가 의미세계의 질서로 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5. 들뢰즈의 정치성 :

들뢰즈는 한 대담에서 “철학이란 결국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말한다. 삶이란 역량과 기쁨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욕망과 외부의 이질성과 관계를 맺는 삶의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는 차이를 통한 탈코드화, 탈영토화의 생성 가능성을 실험하고 쟁취하는 활동이다.

⇒ 진정한 혁명성은 어디에 있는가?

-**들뢰즈의 혁명성** : 상징체계의 억압적이고 위계화하려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 이것이 허구임을 밝히고, 그 이전의 본질적인 탈주체화된 욕망의 영역인 기관없는 신체를 강조한다. 기관없는 신체의 분열증적 배치에 있다. 하지만 지젝이 보기에 현실에 속한 주체의 입장을 배제해 버린 측면이 강하기에 충분히 윤리적이지 못하다. 현실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나 의미 구조를 배제하고 직접 욕망의 본질로서의 기관없는 신체를 사유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옳다고 허용해 버리는 포스터모던의 도착증적 양상과 다르지 않다.

-**지젝의 혁명성** : 상징적 허구 가운데서 출현하는 동일한 속성의 신체없는 기관에 있다. 틈으로서의 부정성, 신체없는 기관에 나타나는 사례로는 응시가 있다. 충동은 죽지 않은 신체없는 기관의 고집스러움으로서 라캉의 라멜라와 같이 주체가 상징적 우주에서 자신을 주체화하기 위해 상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혁명 과정의 두 계기를 기술하고 있다. 그 과정은 근본적 부정성의 제스처에서 시작한다. [중략]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삶의 발명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뒤따른다. 우리의 유토피아적 꿈들이 실현될 새로운 사회적 현실의 구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꿈들 자체의 (재)구성인 단계 말이다. [중략] 정신분석에 대한 참조는 핵심적이며 또한 매우 정확하다. 근본적 혁명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해방적인, 그리고 여타의) 꿈들을 실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꿈꾸는 양태 그 자체를 재발명해야 한다. 이는 죽음충동과 승화의 연계에 대한 정확한 공식이지 않은가? (지젝, 『신체없는 기관』, 김지훈 · 박제철 · 이성민 옮김, 397~398쪽)